

화답마을의 꿈을 소개한 프리젠테이션

hwatop.co.kr로 놀러 오세요^^

화답마을홈피

관광농원/휴양지에서 4위 기록(2012.04.03 현재)



화답마을 쇼핑몰 개설 : 116건 주문(2012.04.03 현재)

주문하세요^^
맛있어요~~~



마을의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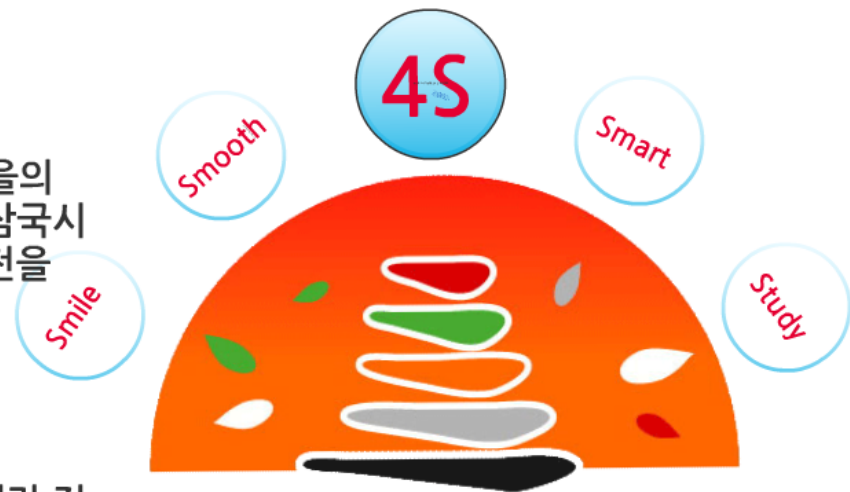
자연과 역사가 함께 숨쉬는 화탑마을

주민이 환하게 웃는 행복한 마을
환경이 부드러운 이쁜 마을
주민간 소통이 활발한 스마트한 마을
번무하고 연구하는 스터디 마을

수차례의 운영위원회와 주민총회를 통해 화탑마을의 비전을 결정했다. 화탑마을은 자연이 아름답고, 삼국시대부터 역사가 함께했던 곳이다. 우리 마을의 비전을 Smile, Smooth, Smart, Study로 정했다. 웃고, 아름답고, 소통 잘되는, 공부하는 마을! 우리 마을의 10년후의 모습이다.

마을은 이런 비전을 갖고 예비사회적기업과 송제리 전체를 권역으로하는 권역개발을 신청중이다. 한편 친환경 에너지를 주제로하는 친환경에너지체험학교도 접근하고 있다.

올해는 부녀회를 중심으로 태외생태를 공부하는 기회를 갖고자한다. 공부하는 생태마을 우리마을의 비전 중 하나이다.



10년후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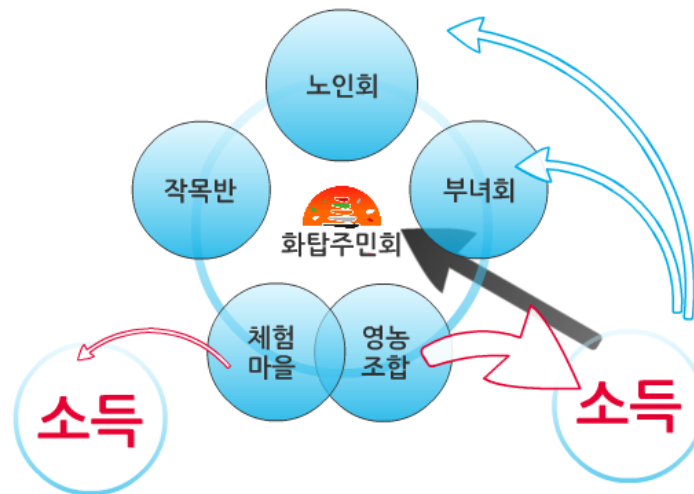
<http://hwatop.co.kr>

임진년 이런 일들을 합니다

2012년 사업 추진 계획

배나무과수체험, 태외생태체험 정착
한우직판장 착한 가격 유지
인터넷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축산물 매출 신장
사회적기업 인증을 통한 고용 확대
연매출 목표 15억 달성
마을 주민 대상 강좌(웃음강좌, 정보교육) 개설
부녀회 등 소모임 활동 활성화
나귀사육시설, 나귀길 조성
에너지체험교실 기반 조성

마을의 분배구조



화답영농조합 법인 매출
의 5%를 주민들이 사용
하도록 결정됐다.





바우네 전원일기

2012년 4월 1일 일요일

눈 뜨자, 가장 궁금한 것은 짹귀 상태.
잠옷 바람으로 짹귀를 찾았다.
다행이다.
짹귀가 막둥이와 나란히 웅크리고 있다.
민들레를 넣어주니, 열심히 씹는다.
자근자근 씹어대는 짹귀 모습이 귀엽다.

귀향과 더불어 우리집 최초 생명은 고양이였다.
집수리 전에 고양이는 풍로 날개 속에 새끼를 낳았다.
집수리를 위해 풍로를 옮기고, 인부들이 자주 들여다보
니, 에미는 새끼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
불쌍한 새끼 한마리만 남겨두고.
남겨둔 어린 생명체를 살리려고 노력했으나, 헛수고.
결국 텃밭에 묻었다.

두번째로 집에 입식된 게, 토끼.
종태아제가 세마리를 가지고 오셨다.
돼지막을 급조해 마련된 보금자리에 살던 토끼들,
두마리는 중간에 갔다.
모두 실종이다.

짹귀 살아나다



한마리 남은 것이 가장 못난 귀돌이.
큰 집을 혼자 지키던 귀돌이 곁에 거평당숙이 보내준 토끼 4남매가 입양되어 온다.
그중 하나가 짹귀다.
짹귀는 막둥이와는 사이가 좋은데, 재돌이완 사이가 나쁘다.
사이가 나쁘다기보단, 재돌이의 횡포에 일방적으로 당한다.
해서, 재돌이만 남기고 막둥이와 짹귀는 이사했다.

어제, 짹귀의 행동이 이상했다.
엉덩이에 큰 상처가 있었던 것이다.
함께 살 때, 재돌이에게 물린 상처가 덧난 것이다.

바우댁 치료에 힘입어 소생한 짹귀를 보고, 귀돌이를 찾는다.
귀돌이 아이들은 털보금자리에서 나오지 않는다.
애들을 어떻게 키우는지, 젖 주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귀돌이에게 밥을 한줌 더 올려 주고, 우리집 독재자 재돌이를 본다.
멀쭙한 모습으로 쳐다보는 재돌이.
옆방에 지 자식이 있는 줄도 모를 것이다.
재돌이에게도 밥을 준다.
물론, 양을 줄여서...
힘이 넘치는 재돌인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이런 모습을 쭈욱~ 지켜보는 돌이(우리 사위는 '똥이'라고 부른다).
저도 보리순 하나를 열심히 씹는다.
돌인, 누가 똥 먹으면 시샘나서 먹는다.
샘이 많은 돌이는 봄이 되면서 바빠졌다.
나비 형제들 방문이 잦아졌기 때문이다.
우리집 수문장 돌이는 불청객 나비들을 쫓기에 바쁘다.



태외 정상에는 너른바위가 있었다.
너른바위에는 세명 정도 들어앉아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움푹한 공간이 있다.
숲이 우거지지 않았던 60년대, 메아리들이 이봉우리 저봉우리 돌아다니던
그 시절.
월출산, 무등산, 영산강을 둘러보면서 얘기를 나눴던 곳이다.

태외 이야기

너른바위

〈새로 조성된 쉼터〉 →



← 〈낙엽에 쌓여 찾기 힘든 너른바위〉

↓
태외 정상, 너른바위가 있던 곳.
옛 자리를 찾았다.
그곳은 낙엽이 두껍게 쌓여 옛모습을 찾기는 어렵다.

바우는 돌이와 너른바위를 찾아간다.
혁탑에서 돌이는 내 의도를 잘 간파한다.
갈딱고개를 넘어 씬터 가까이 이르니, 동창이 밝아온다.
션터 미처 못간 곳에서 동편을 찍는다.

